

# 노동자를 향한 발걸음에서 찾는 오늘의 보람

롯데케미칼 대산공장 | 황현정·임종원 보건관리자

글 임선숙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

롯데케미칼 대산공장  
황현정 보건관리자는  
노동자 건강관리를,  
임종원 보건관리자는  
현장 보건관리 업무를 맡아  
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.  
'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위해'라는  
서로 같은 다짐은  
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 
탄탄한 보건관리체계의  
한 조각을 완성해가는 중이다.



## 언제나 현장을 향해 열린 ‘발걸음’

롯데케미칼은 우리나라 대표 화학회사로 대산, 여수,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. 대산공장은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된 곳으로 기초화학 제품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생산, 액화 설비 등을 구축하며 제품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. 사업장 특성상 다수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.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팀의 인원은 32명에 달하는데, 그중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2명이다. 황현정 보건관리자는 노동자 건강검진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, 임종원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각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.

“영역을 나누어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보건 이슈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, 심폐소생술 교육 등 유사시 노동자들의 대응능력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촘촘히 운영할 수 있죠.”

이처럼 임종원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현장에서 주로 이뤄진다. 노동자와의 소통은 보건 업무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임종원 보건관리자의 발걸음은 언제나 현장을 향해 있다.



## 언제나 노동자를 향해 열린 ‘마음’

작업 중 노동자는 보건관리자의 방문이 불편할 수도 있다. 작업 자세를 일일이 살펴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, 빠듯한 일정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할 여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.

“처음에는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으나, 사업장 내 안전보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십니다.”

수시,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 외에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는 매월 ‘찾아가는 헬스 케어 서비스(Health-Care Service)’가 진행된다. 노동자의 업무 중 애로사항 및 건강관리 이슈를 청취하는 일로 이때 황현정 보건관리자의 오랜 노하우가 빛을 발한다.

“만성질환의 경우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생활 습관이나 징후 등을 통해 유소견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, 노동자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죠.”

5년여의 임상간호사 경력은 노동자의 표정을 읽고, 적절한 질문을 건네는 데 큰 도움이 된다. 노동자 또한 전문가의 공감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고, 사업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보이게 된다.

“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란 거를 깨달았어요. 가족처럼, 친구처럼 다가서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”



## 보건관리자로서의 사명감과 보람

안전보건팀 32명의 인원이 촉각을 세우고 사업장 곳곳을 점검·관리하더라도 크고 작은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. 일하다가 다치는 것을 비롯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, 사업장 내 교통사고도 발생하곤 한다.

“대산공장 노동자가 700명 이상이 되어요. 3도 이상의 화상 및 절단, 심정지도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장 구급차는 항상 대기 중이며 비상 출동도 좀 있어요. 병원 이송 전 저희가 응급처치를 잘해 다치신 분들이 금세 완쾌됐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.”

이때 황현정, 임종원 보건관리자의 협업은 조금 더 밀도 높은 보건관리체계를 만든다. 역할을 분담해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. 평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CPR 및 비상시 초동 조치 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도 마찬가지다.

유사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교대 근무 노동자의 건강관리다.

“생체리듬의 변화는 호르몬 및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이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야간작업 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의 깊게 진행하고 있고, 출장 검진 의사한테도 이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.”

따로 또 같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보건관리자로서, 노동자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들. “저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”고 입을 모아 말한다. 이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사명으로, 두 보건관리자는 노동자를 향한 발걸음에서 오늘의 보람을 찾는다. 🍷

